

<삼공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삼공은 노전상 노불휘. 우리가 곳을 가면 삼공본을 다 끝나면 전상을 허영 놀립니
다예. 날 일 전상, 들 일 전상, 승부상이 대전상, 모든 게 이 분야가 다 전상이라.
전상이라서. 그런 전상이라서, 아주 저 먼드레 내늘리고, 좋은 전상이랑 우리 집드
레 다 왕 우리 잘 돼게 해줍서. 영허는 전상이라.

삼공 난수생 본산국 시주낙형 과광성 신포어 올립네다. 우잇 녀엔 강이영신 이서블,
아랫 녀엔 홍무소천 너실부인 궁예궁전부인.

그 옛날에 우잇 녀에도 흥년이 들고, 아랫 녀에도 흥년이 들어. 이제 먹을 것도 엇
고 허난, 강이영신은 아랫 녀에 시절이 좋아시카 부덴 얻어먹으레 느려사거라. 느려
사곡, 너실부인은 아랫 녀에 시절이 흥년이 드난, 우잇 녀에 시절이 좋암시카 부덴
얻어먹으레 올라사단 보난, 올라사다가 부인님이 담 예염에 앓안, 옷을 벗언 앓안
니를 잡은 쟁이라. 경허난 강이영신이 넘어가단,

“어떻헌 아주망이 질레 앓안에 옷을 벗언 니를 잡암수과?”

혼말 두말 허단보난,

“계건 읍서. 우리 통성명이나 허겐.”

허난, 강이영신이 허는 말이,

“우잇 녀에 흥년이 들어서 시절이 어려우난 아랫 녀드레 얻어먹으레 느려삼수다.”

또, 아랫 녀에 원강부인이

“아랫 녀에 시절이 어려우난, 우잇 녀에 얻어먹으레 감수다.”

말을 근단 보난, 혼 날 혼 시 혼 팔자 혼 스주가 똥거라.

“계건 읍서. 우리 부베간을 삼양 곶이 얻어먹으레 뎡기게.”

겐, 부베간을 삼아네 이젠. 좀잘 디 어시난 들고랑창에, 옛날은 들 ㄱ레 ㄱ는데 잇지
예. 영 녹싸전, 그거 무슨 돌이엔 허느니. 연자방앗간 그런 식으로. 그디 간 남녀간
에 줌을 자난, 부베간을 무은거라. 거난, 은장애기 늦장애기 솟아나니.

경 해도. 아침이 죽을 먹단 밥을 먹고, 밥을 먹단, 조반 먹단 점심 걱정도 아니 허
고. 저녁 걱정도 아니 해서. 겐 살아가는게,

마지막으로 가문장애기가 솟아나니 이 얘기가 복이 아주 좋은 얘기라. 거난, 옛날
도 얘기 복으로 살고, 얘기 복이 어시민 그 집이 개 복으로 산 텐 헤나서 옛날 어
른들이. 그래서 이 얘기가 솟아나니 하루 하루 날로 거부제가 돼어간 단 말이야. 거
부제가 돼가난 집이 아흔아홉 칸이 돼여가고, 안 종도 아홉이여. 베끼디 종도 아홉
이여 막 종 부리명 살아가난. 거난, 사름은 소싯적 생각을 해야 돼는 디.

경 안허영 흐를 날은 비도 축축허게 오라가난, 강이영신님, 홍문수천 너실부인이 심

심허난, 딸들신디 말이나 혼 번 들어보젠,

“큰딸네야, 들어오라. 들어볼 말이 있져.”

“예.”

들어가난,

“너,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허겠느냐?”

“하늘님전 덕입네다. 지에님전 덕입네다. 어머니, 아바님 덕입네다.”

“어, 느, 나뜰이 분명허다. 니 방으로 들어가라. 셋딸네야, 들어오라. 말이나 들어보저.”

“경 험셴.”

허난, 들어가난,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허겠느냐?”

영 허난 허는 말이,

“하늘님전 덕입네다. 지에님전 덕입네다. 아바님 어머니전 덕입네다.”

“어, 니 방으로 들어가라.”

마지막은

“가문장애기 들어오라. 죽은 딸아,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꼭 행공발신 허겠느냐?

누구 덕에 낫사발에 밥을 먹고 누구 덕에 낫대양에 낫을 씻지고 살겠느냐?”

“하늘님전 덕입네다. 지하님전 덕입네다. 아바님, 어머니전 덕입네다마는 나 베포롱 아래 선그릇이 덕이우다.”

“어, 너, 나 즈식 아니여. 나고가라.”

그때엔 어멍 아방이 조식을 내쳐분디는 엇주게. 기냥 곶은 말이라. 혼설 두설 열다섯 십오세 입단 그 옷 내 주멍

“너 나고 가렌.”

꿀보기 싫덴. 겐 나고 가난, 종하님을 거느려나고 가난, 올레 베끼디 사네 이신거주. 이시난에. 어멍 아방은 이 가문장애기가 엇어진거라. 거난, 좇아살거 아니. 겐 곱사 곶앗주마는 부모가 내쳐불진 아니헐거난.

“야, 큰 딸네야, 저레 나고보라. 느네 아시 어드레 감시니?”

“경 험셴.”

허멍. 올라사멍 허는게, 쉼걸름 우트레 올라산거라. 옛날엔 쉼걸름 마당에 막 뉘며 낫주게. 올라사멍 허는 말이, 영 베려보난, 큰성도 장난으로

“야, 제게 가불라. 어머니 아버지 느 또리레 앓져.”

허난,

“알앗우다. 성님, 나가 어서도 어머니, 아버지 잘 슬핍서.”

돌아사멍,

“성님이랑 용달버섯으로 환생해불라.”

옛날 쉼걸름 우이 가민 그 버섯이 많이 나. 계난, 건 먹지 못허는 버섯이라. 겐 돌아상 버섯으로 환생을 해분거라. 계난, 망해가는거라 이제. 이제, 큰 딸도 안오난,

“야, 셋 딸아, 나고보라. 어떻헨 느네 성도 안오고 아시도 아니웁시니?”
허난, 올라사명 들팡들로 옛날 허벅 정 가민, 마당에 영 불 짓어수게양, 거난, 들팡
돌 위에 올라사명 영 베려보난, 성은 엇고
“야, 아시야, 혼저 가볼라. 아버지 어머니 몽둥이 들런 느 또리레 앓젠.”
허난,
“알았우다. 아바님, 어머니, 성님아. 나가 엇어도 아바님 잘 모십서.”
겐 모시렌 허난, 돌아사명 근는 말이,
“성님이랑 칭주넝이 황주넝이로 환생을 헤볼라.”
영 허난, 환생을 헌거라. 경 허난, 이젠. 아방은 이젠, 아바진 이젠 안오난,
“아이고, 이거 어떻헌 일인고? 화다탁 나오단에 상방에 문 잇지안허파예. 상방에 문
에, 옛날엔 그 문 증그는게 잇어나서. 그 문 설에 눈 박아부난, 양쪽. 어떤 사람은
환탈봉사, 어떤 사람은 용달버섯이엔 허는다. 봉사가 돼엿우다.
어머님은 조왕에서 급허게 화다탁 나오단 보난, 조왕 무똥에 눈을 박안 봉사가 돼
엿우다. 아흔아홉 칸 집도 엇어지고. 밧도 엇어지고, 종도 엇어지고, 애기도 엇어지
고. 다 망허연 거러지가 돼분거라 이젠.
거난, 흐루 흐루 연명허연. 얻어먹으레 할망 하르방이 막텡이 짚언 땡기는거주. 땡
기단에 이젠,
땡겨가느디 가단가단 보난,
가문장애긴 정하님을 거느런 가단보난, 인간처를 등길 수가 엇언 가단보난에, 영 벵
려보난, 불미불산 아약산성 마통이들 마 팸시난, 그디 강
“야, 정하님아, 저레 강 들어보라. 어디가사 인간처를 등길 수 이시닌?”
허난, 큰마통이 신디 가난, 종하님이 간,
“아이고, 질 넘어가단 나그넨디 어떻헨 어디 가사 인간처를 등집니젠?”
허난, 큰마통인 경 아니해도 마도 못 팡 막 용심이 난거라. 거난, 허는 말이.
“예펜 년이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인디. 어떻허난, 남녀간에 유별헌디 마 파느디 완
어지럼시넨?”
후욕노욕 욱을 헌거라. 거난, 돌아오난,
“가난, 뉘엔 곱아니?”
“아이고, 말도 맵서. 가난, 욱만 후욕노욕 험디다.”
넘어가단, 가단 보난, 셋 마통이가 막 마를 팸서. 이디도 가난,
“저디도 강 혼번 더 들어보라.”
가근에
“어디가사 인간처를 등집네까?”
“여자엔 헌건,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인디. 어떻허난, 영 마 파느디 왕 어지럼시닌?”
후욕노욕을 허여가난,
“가난 뉘엔 곱아니?”
“가난 욱만 들엇우다.”

이젠 가단 보니, 죽은 마통이가 마를 파는거라. 그딘 가난, 가젠 허난, 부베간은 뉘
젠허난 거라. 인연이란 게 히한저, 가난 허는 말이,

“이번이랑 상전님대로 갑서. 난, 옥 그만 들으쿠다.”

“게문 알았저. 늘랑 이시라.”

나가 가난, 죽은 마통이 마 파는디 간보난, 춤 얼굴도 곱고 모음씨도 좋은 어른이
라. 아이고, 마 팜시난에,

“질 넘어가단 인간처를 등길수가 엇언 어디레 가사 인간처를 등길네까?”

허난, 죽은마통인 공손허게 요 제 넘곡, 저 제 넘영 가당보민 비주리초막살이에 거
죽문을 돌앙 잇일거우다. 그디 할마님 잇일거우다.

겐 허난, 가네 내려오란, 이 제 넘곡, 저 제 넘언, ㄹ루ㄹ루 넘어가는 거라. 가단보
난, 비주리초막살이에 거죽문을 돌안 잇고, 정젠 베려보난, 할마님 불을 숯안시난,

“질 넘어가는 나그네우다. 오늘 저녁에 이슬이나 흐쓸 피행 가쿠다.”

게난, 할마님이 허는 말이

“베려봅서. 이디 어느 나그넬 앓고, 주인 앓을 디가 잇우과?”

허난,

“나그네라고 집을 지영 텅김니까, 무똥도 좋수다.”

허난,

“경허렌.”

할마님광 정지에 불 숯암시난, 곶이 강 불 추우는거주. 앓앙 이시난, 난데엇이 베락
천둥 소리가 와릉광허난, 기겁을 헨거라.

“이거 무신 일잇펜?”

허난,

“걱정허지 맙서. 우리 큰 마통이 마 팡 굴려오는 소리우다.”

마 팡 등그려완에 허난,

“아이고, 질 넘어가던 나그넬디 저녁 이슬이나 피행 가젠 이디 잇젠.”

허난,

“우리 먹을 것도 어신디 뭘 허레 나그넬 못허수젠.”

막 옥을 헨거라. 어멍신디. 거난, 솟디 똥 이녁냥으로 말 숯은거라. 숯아내언, 솔 짚
은 건 어멍도 안쥐. 막 솔 짚은 건 이녁이 먹고, 흐쓸 우이로 데가리 붙영은에 솔
붙은 건 어멍을 안네고, 꿀랑지 먹을 거 잇인 건 나그네 주고, 거난, 방드레 들어가
분거라.

흐꿈 이시난, 셋 마통이가 마 파 굴렁 와르르광 허난,

“아이고, 저건 무신 소리펜?”

허난,

“우리 셋 마통이 마 파 굴려오는 소리여.”

셋 아들도 오자마자 나그네 못헛젠 허난, 먹을 것도 어신디 나그넬 뉘허레 못혀시
넨 후욕노욕 허여가난, 말 숯아네, 솔 짚은 건 이녁이 먹고, 꿀랑지로 솔 붙은건 어

명을 안네고, 데가리로 술 엇인 건 나그넬 주고, 경 방드레 들어가분거라.
 삼세 번 차는 와릉광광 허난,
 “이건 우리 족은 마통이 마 파 굴려오는 소리로구나.”
 족은 마통이 오난에 허는 말이, 족은 마통이가 오난 허는 말이, 나그넬 못헛젠 허
 난,
 “잘 헛우다. 어머니. 나그네라고 집을 지영 뎡집니까, 잘헛우다.”
 겐에 마를 숲아네, 족은 마통이 마 숲아네 술 짚은 건
 “어머님아, 술 짚은 걸랑 어머님이 드십서. 데가린 나가 먹쿠다.”
 술 흐뎡 붙은 건 이제 나그넬 안넨거라. 겐 먹어놓고 문딱 방드레 들어가난, 무뎡에
 앳안 이시난, 열거든 아멩헤도 그때도 흐뎡 ㄱ슬이 뉘가는 생이라. 마 팔 때가 뉘거
 보난, 마도 썸이 문딱 가불어사 파주게. 거난, 하도 열어가난, 할망 방은 족안 늣지
 못허고 허난, 이제 큰마통이신디 가네, 잠시라도 발이라도 헤뎡 막앙 늣겐허난,
 “말다.”
 셋 마통이신디 강 곁아도
 “말다.”
 족은 마통이신디 강 곁으난에 문 열멍 서른여덟 니빠딜 허우덩석 웃으멍
 “들어옵서.”
 들어오난, 이젠, 그게 부베간을 삼아분거라. 부베간을 삼안 누난, 아니, 뒤녁 날은
 일어난보난, 족은 마통이가 아주 양반에 행세가 뉘비엇거든. 게난,
 “어뎡허난 경헤니?”
 허난,
 “어치냐 나그네광 발을 막앙 누니 일어난 보난, 영 뉘우다.”
 허난,
 “우리도 게민 경 허켄.”
 허난, 이 대목에선 흐쉴 우시게도 험니다게.
 “형님, 이미 때는 늦어수다.”
 또, 요세 신식말로
 “버스는 이미 지나갓우다.”
 이젠 안뉘거라. 경 허난, 부에도 용심도 나도 마 파레 다 올라간거라. 올라가난, 이
 젠 허는 말이, 가문장아가 허는 말이,
 “옵서. 우리 마 파는디 산보 구경도 허고, 마 파는디 구경이나 혼번 가보게.”
 이젠 큰 마통이 마 파는디 강 봐도 그자 왕석만 앙상허고, 셋 마통이 마 파는디 강
 봐도 훗은 돌 족은 돌 그자 그런 것만 앙상허고, 아니, 족은 마통이 마 파는디 간
 보난, 큰 돌 족은 돌 막 뉘메져시난, 이젠 이것도 마찬가지엔 허난, 가문장아가
 아니우덴.
 “이게 다 금이우다. 은이우다.”
 그게, 아닌게아니라, 금이야 옥이야 뉘거라. 밤은 짚어 야사삼경이 뉘니 거기서 어

옥페기 치멜 들린 밤을 세언, 아침에 일어나보니 세상이 천지가 개벽이 돼서 엄청난 부제로 살거든 이제. 아주, 아흔아홉 칸 집이여. 종들이여. 큰 종이여. 작은 종이여. 안 종이여. 밖 종이여. 막 거느린 거부제로 살단살단, 뭐 세월이 엄청 지났겠지. 가문장아가

“읍서. 우리 잘 살꼭 허난, 거러지 잔치나 두일뵈 열나홀만 허게마썸.”

“경 허렌.”

그때엔 거러지 잔치를 두일뵈 열나홀 허난, 팔도에 방을 붙인거라. 다 모다듬센. 거러지들. 거난, 방을 붙였더니 두일뵈 열나홀 뵈여가니, 눈 어둡은 사름 말 모른 사름 머리 긴 사름 옷 안 곱아 입은 사름 곱인 옷, 곧 옷 입은 사름 막 담아들어 가는 거라. 헤여도 어멍 아방은 안오거든.

‘아, 이젠 어멍 아방이 죽었구나.’

생각허영 오늘은 잔치가 끝낭 못가가젠 허는다. 저 먼정으로 뵈려보난 오는게 똑 아버지 어머니 닮아뵈여. 거난, 종들신디 시킨거라.

“상 설르지 말앙. 저디 오는 노인네 두분이랑 오건들랑, 가운데로 앓건들랑 양끝으로 즈근즈근 뵈여가당 그디 가건 음식을 딱 설러볼라.”

경헨, 이제 들어온거라. 가운데로 톱 출령 앓으난, 양끝으로 조근조근 뵈여오단 그디 오단보난, 음식이 톱 떨어진단 말이여.

“에이, 이번엔 우트레 강 앓저.”

우트레 강 앓으니. 알로 우트레 뵈여가는 거 보난, 글로 가민 또 끊어지는거라.

“에이, 이젠 알로 앓게.”

알로 간 앓으니. 우이로 즈근즈근 뵈여가단 그디 오난, 톱 끊어진거라.

“우리는 조식이 복이 어시난, 얻어먹는 것도 복이 엇구나.”

이젠 돌아상 가젠 허난, 종하님신디,

“저, 노인네들랑.”

굴묵, 옛날은 굴묵을 만들민 곧바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 들어가고 영 꺾영 들어가나서. 거난, 그 무똥도 굴묵 무똥드레 앓지렌. 그디 강 앓지렌 허난, 그디 강 앓지난, 이 밤에 생 갑센 허난, 앓아신디. 아니, 무시거 부실락부실락 허난 강이영신이 막뎡이로 확 내후리난에, 뭐, 이 대목에선 여라 말 곱읍니다게. 무시것이 깨갱 허는 것이 보난, 강생이라. 화다닥 들으난, 이젠. 안네서 들으난에, 이젠 딸이 들으난 경 헤시난,

“저 어른 네가 옛날 버릇을 못 고쳤구나.”

이 대목에서는 곳 혈 때는 작데기, 막데기, 족데기, 비리데기 문딱 내늘주. 강이영신 흥문수천 헌웃이랑 천지왕 브름 아래 다 내늘리자. 내늘리자. 내늘리자. 어느 부제 칩더레. 다 내늘리자. 또 심방칩이는, 스가칩이는 막 부제칩더레, 뭐 대정더레 내늘리자. 정의더레 내늘리자. 목안더레 내늘리자. 뭐, 어디 부젯집더레 내늘리자. 옛날 김좌수택더레. 조부장칩더레 내늘리자. 내늘리자. 심방집덜은 남자덜은 황소, 여자는 텍이. 아무 칩더레 아무 황소 칩더레 내늘리자. 어느 텍이 칩더레 내늘리자. 영 헨

허난, 옷을 영 곶아 입전. 곶아 입지고, 노인들을 상 혼상 잘 출려냥, 봉사라부난 상사 출려신지, 아니사 출려신지 알아질거라.

혼상 출려냥, 이레 앓입센 허난, 아이고, 우리 잘 맥영 죽여불미나 허카부덴, 요새 곶으민 바짝 긴장을 헨 거주게. 딱 앓안 허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님아.”

허난,

“누게가 나신디 아방이엔. 어명이엔 부를 사람이 엇우덴.”

“은장애기, 늦장애기, 죽으라고 내친 감은장애기우다.”

영 허난,

“아이고, 어떻허난, 죽으라고 내친 아기가 살아시닌?”

허난, 그때엔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놀레나 불르건덜랑. 놀레 불르건 술이나 혼잔 먹읍서.”

영 허영. 이젠 그때엔 소미가 북을 창 앓아. 난 이제, 그사람 장기체 앓양 곶을 허난이. 오늘은 이걸로 영 허영. 노래를 불러가는거라.

“오늘, 오늘이라. 내일 장삼은 오늘이라. 브름 산도나 놀고 가져. 구름 산도나 놀고 나 가져.

우잇 녀엔 강이영신 이서블이 사웁데다. 아랫 녀엔 너실부인. 궁예궁전 부인이 사웁데다.

우잇 녀에도 송년이 들고, 아랫 녀에도 송년이 드니 강이영신 홍문수천 너실부인님 삼도전까지 부베간을 삼앗더니,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른장애기가 솟아나니 하늘 아래 거부제가 뒤영오라 허는구나.

흐를 날은 애기덜아 들어오라. 말이나 혼 번 들어보저.

“큰딸아,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을 허겠느냐?”

“하나님전 덕입네다. 지하님전 덕입네다. 아바님 어머님전 덕입네다.”

“나 딸애기 분명허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셋 딸애기야 들어오라.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하늘님전 덕입네다. 지하님전 덕입네다. 아바님 어머님 덕입네다.”

“나 딸애기야, 분명허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죽은 딸은 가른장아기, 들영오라 말이나 들어보저.”

“누구덕에 늦사발에 밥을 먹고, 늦대양에 세수를 허느냐?”

“하나님전 덕입네다. 지하님전 덕입네다. 나 베포롱 아레 선그릇이 덕입니덴.”

허여가니, 혼설 두설 세설 네설 입단 의복 내어놓고 늦인덕수정하님을 헤여 나고가라 허여간다.

“큰 딸애기야, 나고보라 느네 아신 어디레 감시니?”

뵈려보니 간다. 췌걸름 우트레 올라상

“제게 가불라. 아바님네 또리레 오람구나.”

“용달버섯으로 환생을 허라.”

“셋 뜯네야, 저레 나고보라. 느네 아신 어디레 감시니?”

물광돌 우트레 올라사건

“아이고, 가문장애기 혼저 가불라. 아바님 어머님 또리레 오람저.”

돌아사명 셋 성님이랑 황지녕이 청지녕이 환생허렌 허여간다.

아바님은 상방 문에 눈을 박안 환탈봉서, 어머님은 조왕문에 눈을 박안 환탈봉서
거러지가 웨엇구나. 흐루흐루 연명허멍 얻어먹으레 덩겨간다.

가문장애기 큰 마통이 셋 마통이 죽은 마통이 인간처를 등겼더니 비주리초막살이
거죽문을 들양 할마님이 불을 쏘아간다. 그디 앓안에 불을 추렌허난,
와릉광광,

“이건 무슨 일입네까?”

“우리 큰마통이 마 파 굴러오는 소리로구나.”

두 번차는 와릉광광 허니 셋마통이 마 파 굴러오는 소리

세 번차는 와릉광광 허니 죽은마통이 마 파 굴러 오는 소리로구나.

올려가니 마를 쏘안 술 짙은 건 어머님을 안네고 풀리 붙인 건 나그넬 주고, 머리
는 이녁이 먹어간다.

발을 막아 누니 부베간을 삼아가는구나.

뒤녘 날은 큰 마통이 셋 마통이 일어난 나오란보니,

“어떻허난 촌장님이 아침이 읍데가?”

“나는 죽은 마통입네다.”

허여가니.

“어쩐 일이냐?”

사실 말을 곱앗구나. 때는 늦어 가는구나.

가문장애기가 허는 말이,

“읍서. 우리 산보 구경 꽃 구경 절 구경 마 파는디 구경가게.”

큰 마통이 셋 마통이 마파는디 간 보니 금도 은도 아니로구나.

죽은 마통이 마 파는디 금이야 옥이야 잇엇구나.

해는 서산에 지어불고 어욱폐길 의지헤연 줌을 자니,

뒤녘 날은 하늘아래 거부제로 살앗구나.

“읍서. 우리 거러지 잔치 두일뤼 열나홀 허여보게.”

“어서 걸렁 기영허렌.”

거러지 잔칠 두일뤼 열나홀을 허여가니 잔치가 못가가니 아바님 어머님 아니온다.

어떻허니 근심허연 저먼정으로 뵈려보난,

강이영신 너실부인 아그랑 막데기 지어 끄어근, 어머님은 압을 사고, 아바님은 뒤를
사고 오라가니 헨다.

가운텔로 앓으민 양끝으로 맥여 가단 설러불고, 우로 앓으민 알로 가당 끊어불고,
알로 앓으민 우로 가당 끊어불고. 물부억드레 앓저간다.

강이영신 홍문수천 족데기, 막데기, 비리데기 강이영신 홍문수천 헌웃이랑 천지왕
골목드레 내놀러.

구덜러레 혼상 출려 놓고 가문장애기가 허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님아 이 술 혼잔 받으셔.”

“누게가 나신디 아바님 어머님이엔 할건고?”

베려보니,

“은장애기, 낫장애기 가문장애깁네다.”

죽으라고 내친 즈순이 살았구나.

“아바님 어머님 나 술 혼잔 받으셔. 눈이 팽통헝서.”

영 허난, 이 대목에서 눈이 팽통헝서 허영. 여기 혼잔은 감지, 여기 혼잔은 술 비와.
아바진 술, 어머니 감지. 겐 낱 영 허민. 요기 영 가로지민 돼는거고, 요게 영 엮어
지민 아, 이집이 누게 그 옛날에 눈 어둡운 이 잇어나수과? 앞 어둡원에 저승 간
어른이 이수과? 게민 그거 백프로 맞아 또. 예 잇엇우다. 경 아니허든 이게 절대 영
이 안돼주게. 이게 엮어지질 아니헤여. 경 허영 허민 또 젊은 사름도 경 혈수 잇고,
애기도 눈 어둡울 수 잇고. 경허는거난, 다 헤팅 그때부터 전상을 내놀리는거라. 전
상을 내놀령.

우리 행사 갈 때는 막 빨리 푸다시 허젠 내놀리자. 내놀리자. 영허주만은.

스가침이 장구 창 앓을 때는 글 허기도 전상이요. 활 허기도 전상이요. 상업허기 전
상이요. 농업허기 전상이요. 잠대 메와 밧갈기도 전상이요. 차 타기도 전상이요. 배
타기도 전상이요. 저 바당에 무레질 허기도 전상이요. 사농허기도 전상이요. 요센
시국이 변천돼난 해상 허기도 전상이요. 공무원 허기도 전상이요. 도청 공무원, 시
청 공무원, 읍 공무원, 면 공무원, 농협 땡기기도 전상이요. 오늘 좌혜경 박사님네,
선생님네, 이거 사진촬영 허는 이도 전상이요. 우리 불도허기 전상, 정시질 허기도
전상, 심방허기 전상이요. 술먹어 광질허는 것도 전상이요. 말 하영 곤는 것도 전상
이요. 투기 데움허는 것도 전상이요. 어질고 착헌 전상이랑 이 집안 안네 머리전메
은등헝서.

전상이요. 만상이요. 이 집안 안네 방안, 방안, 부엌, 부엌 감아지던 전상이요. 청대
죽이 청설육 소지독에 흑설육 백도죽에 백설육도 내놀립서. 이 집안에 아픈는 전상
도 내놀립서. 금전 손해 제물 손해 농사 아니돼게허는 전상덜도 내놀립서. 애기덜
형제간에 씹는 것도 내놀립서. 조식 부모 일가방상 불묵주는 것도 내놀립서.

영 허영 문딱 내놀러. 경허영 저 대정만씩 열리만씩 경 내놀러. 우리 이쪽더렌이.
저쪽더렌, 이젠 목안더레 문딱 내놀립서 경허영. 옛날 무슨 드리힐 때 김좌수 집이
옛날 혈 때 거믈 막 부제칩더레 뭐, 감목관 집더레 문딱 내놀립서 경허영 다 느리
와.

이제 심방침이 굵은, 여기서 하나 더 붙으는게 심방침은 남자는 황소 여자는 텍이
라. 여자는 황소란 말이 없어. 옛날 남자는 표선이 가민 신맹국이 신메옥이, 우린
황소, 황소 헝니다만은. 이 어른들이 큰 황소거든 겐 글로 내놀립서. 막 영혜가주.

큰심방도 김택이 집으로. 조택이 집으로 어느 집으로 다 내놓립서. 영 허영 내놓령. 이 대목에도 가면 스가칩이도 가면 옛날 어른들은 다 알아. 딱 앓양 들으멍, 옛날은, 요자기까지도 굿을 가면 본주들이 잡신이 하나도 엇어 다 조용해. 요즘엔 그게 아니라 요즘엔 가민 막,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경 허멍 굿사 험신지, 절사 험신지 걸 몰라. 게민 난 항상 욱을 허여. 네중에 우리가 굿을 해서 이 말을 글암신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굿을 허는 거지, 당신네 말 곧기 위해서, 당신네 웃기 위해서 굿허는 게 아니우다. 게민 미안허우다. 영 곧는 어른이 대중은 다 기라.

경 해놓고 심방칩은 굿이 어렵기 때문에 심방칩이 가민 이 전상에서도 큰심방 죽은 심방이 딱 분리가 돼여.

옛날 신평리 가면 문일이 어머님이 고감연씨 라고 키가 엄청 큰 어른이우다. 이만이 해. 눈도 이만이 허고 현디,

그 시어머니가 원래 김택이라고 워낙 큰 심방이라 옛날 상천미서 굿을 허민 하천이 다리가 다 올릴 정도로 굿을 헌텐허여. 목청이 경 커신디, 동남 고성 오일장에 왔당, 옛날은 고성인디 오일장에 왔단, 옛날옛적에 장에 왔다네 종달리 양달권이네 심방네 집이 큰굿 험젠 허난, 워낙 어른덜이곡 허난, 부질 가주. 그냥 몸빼 입은 차수건 쓰고 간 거라. 간 허난, 심방은 다 이쪽 심방덜만 간 거라. 큰 심방덜만 가신디. 딱 들어가젠 허난, 아니 저 문일이 어멍 와수텐 허난, 본주 심방이 올레 사십센 허라. 삼도리 상 상불, 감상기 들렁 강 청행 들이난, 이쪽 심방들 안봐났거든.

“아니 얼마나 대단한 심방이랑 저추룩, 저차락 청험신곤?”

허멍. 간 보난, 삼공본 딱 이 대목이 온 거라. 심방은 넘어가당 굿 흐쉴 헤똥가는 거라. 허난 문일이 어멍이 게난,

“굿 남은거 이수과?”

“응. 삼공본 남아서.”

“게민 나 삼공본 잘허나 못허나 허쿠덴.”

허영. 공깃상더레 절허고, 어른덜 몰른 선생덜이난,

“나 잘 못허주마는 굿허쿠다.”

인사를 헤똥 앓양 장귀를 탁 찬 드르릉 허게 헨.

이 어른넌 절대 목청을 바쁘게 안헤여. 장구 창 앓을때 만큼은, 딱 앓아네 탁 나사멍. 아무건 아멍허고 으~어~, 딱 이추룩 허난,

삼공본을 풀영 전상을 탁 내놓리니 그 수많은 심방 어른덜이 다 박술치는 거라. 이게 심방이엔. 게난 심방집인 이 전상만큼은 잔대로 헤야지만이, 이 전상만큼은 잘 내놓려야 그 심방칩이 덕을 보는 거라. 경 허는 거난, 우리 일반 사람덜은 그냥 심방헌 요즘 어른들도 본풀이를 막 간단허게 생각해. 젠디 그 내용을 알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뜻은 알아들어야돼 예.

